안녕하십니까, 버들치 팀의 요구사항 규격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는 시간 관계상 간략화 되어 있다는 점 고지드립니다. 요구 규격서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기에 부족하신 점은 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저희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발표에 앞서 용어 및 약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마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실 UseCase입니다.

이는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사용 시나리오를 기술한 것을 뜻합니다.

두번째부터는 저희 앱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용어들입니다.

두번째로는, 여행지입니다.

여행지란 사용자가 작성한 일정의 전체 목적지로, 여행이 이루어질 도시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여행, 서울 여행, 울산 여행 등이라고 하였을 시, 부산, 서울, 울산이 여행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행장소는 여행지 내에서 사용자가 방문하기로 한 특정 장소로, 여행지에 포함된 개별 방문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내에 풍국면, 이월드 등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기록입니다.

기록은 사용자가 여행을 마친 후, 사진과 코멘트로 작성되는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계획은 여행 전, 사용자가 여행온나에서 작성하는 여행의 기본 틀로, 여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의합니다.

일정은 계획을 기반으로 구체화된 여행 일정으로, 사용자가 여행온나에서 생성한 여행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여, 계획은 클래스, 일정은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바텀시트와 같은 경우, 에브리타임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경우, 친구들의 시간표를 보려면 아래의 하단 바를 끌어 올려 친구 목록을 봐야합니다. 친구 목록이 저장되어 있는 시트지를 바텀 시트라고 합니다.

저희 앱에서는 마커지도 하단부에 여행기록 리스트들이 적힐 것입니다. 추후 또 언급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커는 여행장소에 대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

다음은 프로젝트 목표 및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기존의 여행 계획 및 기록 앱들이 제공하는 불편함을 해결하며, 각 앱의 장점을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관해 바로 다음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개발 배경으로는 여행 계획과 기록을 한 곳에서 관리하며,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갖춘 앱이 필요하기에 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개발 목표는 통합된 여행 계획과 기록 관리, 그리고 SNS 기능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며, AI 기반의 맞춤형 여행 추천 서비스를 통해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편의성과 관심성을 증대시킵니다.

——

저희의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 또한, 기능적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에 자세히 기재되어있길래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성능 및 확장성, 안정성 및 가용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안, 데이터 관리, UX, AI 추천 기반 시스템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호환성 및 통합성, 유지보수 및 확장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앞서, 기존 앱들의 불편함을 해고자 저희 앱을 기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기존 앱의 불편함에 대해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플 입니다.

트리플과 같은 경우에는 여행 계획에 중점된 앱으로써, 여행 기록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미흡하기에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기록과 리뷰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Photolog입니다.

여행 기록에 중점을 둔 앱입니다. 위 앱은 계획 기능과 SNS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록 시에도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기록이 되지 않아 이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는 여행 경로를 확인하는 것으로 여행에서 쓰입니다. 여행지 추천 시스템 즉, 계획하는 것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하며, 여행 기록에 대한 기능은 최근 검색어 기능 외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은 패키지 구매에 관한 기능은 매우 잘 되어 있으나, 기록에 대한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며 SNS에 대한 기능도 미흡합니다.

——

WBS와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큰틀로 존재합니다.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배포입니다.

——

저희는 9월, 10월에 걸쳐 계획과 요구분석을 끝내며, 11월에는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1월부터 개인 개발 공부를 병행 시작하며, 2월부터 구현, 배포를 6월 2주차 내로 끝낼 예정입니다.